

비문학 요약의 원리

[2018학년도 수능 분석]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 학생 요약
- 모범 요약

길은 있다. 믿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②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③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④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①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②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③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④환율은 상승한다.

[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⑤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
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
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
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
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 ㉔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
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
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
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3.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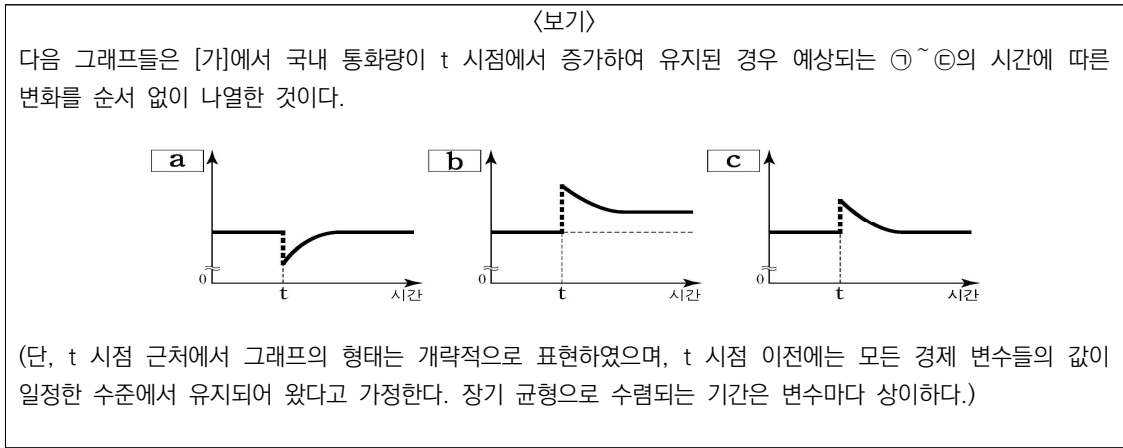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5.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꺾히는

학생 요약

1문단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글의 흐름	
핵심 정보	

2문단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글의 흐름	
핵심 정보	

3문단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글의 흐름	
핵심 정보	

4문단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글의 흐름	
핵심 정보	

5문단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u>미세 조정 정책 수단</u>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u>©도모</u>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글의 흐름	
핵심 정보	

모범 요약

1문단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②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글의 흐름	정부는 정책 수단의 특성과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핵심 정보	정책 수단의 특성 <pre> graph LR A[정책 수단의 특성] --> B[강제성] A --> C[직접성] A --> D[자동성] A --> E[가시성] </pre>

인식 point - ‘목적’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다. ‘정책 목표 달성’이 이 글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 요약의 원리** - 1. 정보가 분할되어 있을 경우, 정보의 분류 기준과, 분류된 정보 간의 차이는 반드시 인식한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기억하기 힘들 경우는, **차이의 핵심을 흐름으로 기억한다.** 즉, ‘강제성이 이렇고, 직접성이 저렇다’는 것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 경우 그냥 ‘정부 내부에서 하는 것 / 정부 외부에서 하는 것’로 기억해 버리는 식이다. 그 후에 선택지를 보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문으로 찾아가면 그만이다.
2. **‘목적’이 곧 주제이자, 핵심이다.** ‘~를 위해’ 다음에 붙어나오는 말은 글을 지배한다. 수능과 평가원이 가장 명시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반복, 대립항, 화살표가 형식적으로 주제를 보여준다면, ‘목적’은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지문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2문단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꺾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글의 흐름	환율 등의 경제 변수가 갑자기 튀는 게 오버슈팅이다.
핵심 정보	환율 ↗ 장기적 수렴 : 기초 경제 여건 반영 ↘ 오버슈팅(단기) : 물가 경직성 / 불안 심리 (~기초 경제)

인식 point

- ‘사례’ 중 하나로 내용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지문의 분량이 길다고 그걸 주제로 착각하게 될 수 있다. 주제는 ‘정책 수단’이다.

요약의 원리

- 1. 대립항을 인지했다면, 그것들에 속하는 대립항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대립항이 된다. ‘장기-단기’는 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항 잡기가 쉽다.

‘환율의 장기적 수렴’과 ‘오버슈팅’은 이 순간 정반대의 말이 되며 한 쪽에서 ‘A’라는 특징이 나오면 글의 흐름을 깨지 않는 전제 하에서 반대 쪽은 ‘~A’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환율의 장기적 수렴’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고 글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버 슈팅은 정반대의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물가 경직성, 불안 심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순간 이 2가지 용어를 ‘기초 경제와는 정반대’인 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맥락 없이 물가 경직성을 보고 기초 경제와는 정반대인 말로 보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다.

- 2. 분량에 얽매이지 마라. 단순히 분량이 많은 것과 정보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1문단에서 분명히 ‘정책 목표 달성’을 핵심으로 지문을 시작했다.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전환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지는 않는다. 2문단에서 환율 얘기를 대립항까지 쓰면서 꺼낸 것은 맞지만, 주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핵심을 계속 되새김질해라.**

3문단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글의 흐름	물가와 환율 간의 조정 속도가 다르면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핵심 정보	신축성 - 물가 : 단기 X 장기 O - 환율 : 단기 O 장기 O + 물가 $\neq$ 환율 $\rightarrow$ 오버슈팅

인식 point - 차이점을 인식한다.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 지도 인식한다.

요약의 원리 - 1. ‘현상’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니가 예전에 현상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말을 바꾸냐’라고 반문하면 내 자료를 똑바로 안 본거다. ‘이유’를 몰라도 풀 수 있다고 했지, 잡을 수 있는 ‘이유’를 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 이해가 되면 당연히 더 유리하다. 아무리 과인 지문이 어려워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해하고 푸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사람(=너)보다는 당연히 유리하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생각을 넣지 않거나 글 읽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버슈팅에 대한 ‘이유’가 잡힌다면, 정보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이유’가 대립항에서 나온다. 이 정도로 강조된 정보는 반드시 밑줄 치고 잡아라.

2. 식과 화살표를 모두 외우지 않는다. 사실 외우지 ‘않는다’보다는 ‘못한다’가 맞다. 핵심적인 화살표가 아닌데 머리속에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한계를 인지하고, 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해라. 3문단에 나오는 화살표 중에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라. **표시하고, 빨리 넘어가라.**

4문단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 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글의 흐름	통화량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오버슈팅을 유발한다. 하지만 대세로 돌아온다.
핵심 정보	통화량 ↑ → 금리 ↓ → 기대 수익률 ↓ → 해외 자금 유입 ↓ → 환율 ↑ (=오버슈팅)

인식 point

- 정보가 쏟아질수록 핵심만 잡으려고 노력해라. 평가원도 자기가 이런 글 왜 써야 하는 지 자괴감이 들 것이다. 내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약의 원리

- 1. 길게 늘어지는 화살표는 전부 기억할 수 없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만 집중해라.** 이해를 하면서 적당한 속도를 읽는다. '경제 요소가 저렇게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환율이 오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 기억하려고, 다 적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다. 벌써 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버슈팅은 이 지문에서 정책 수단의 달성을 방해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문의 흐름상 뒤에 나올 '정책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를 꾸역꾸역 넣을 생각을 사라질 것이다.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한 생각은 '아 X발 X나 기네 버려버려 XXX들'이었다. 문제 내려고 억지로 길게 늘어놓은 게 조금 역겨웠다. (산수 문제내려고 너무 티나게 글 써서 짜증났다) 아무튼 **핵심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5문단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u>미세 조정 정책 수단</u> 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글의 흐름	정부는 오버슈팅의 '원인'을 막거나 '결과'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핵심 정보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원인 완화(=사전적) : 경직성 완화 / 강제성 ↓ 결과 완화(=사후적) : 세금 조절 / 직접성 ↑

인식 point - 코태하던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리던 정보가 나오면 바로 잡아서 연결한다.

- 요약의 원리** - 1. **구체적인 말을 추상적으로 압축해서 기억한다.** '물가 경직성'으로 기억하는 것이 나쁘기보다는, '원인'로 기억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정적 파급 효과'로 기억하기보다는,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이라는 구절을 읽으면 글을 잘 읽었다는 자신감을 가진 채로 문제로 갈 수 있다.
- 세부 내용보다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끔 짧게 기억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부 정보가 머릿속에서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글을 하나로 이으면서 정리한다.** 긴 지문일수록, 그리고 정보가 쌓일수록 정리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보다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핵심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다 읽은 후에 1분 정도를 투자해서 핵심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

